

세계적 카운터 테너 무대 광주서 즐긴다

세종솔로이스츠·데이빗 다니엘스

내달 11일 문화전당 무료 공연

26일 오전 10시 홈페이지 예매

‘신성’ 크리스토프 뒤모도 출연



오는 6월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을 갖는 데이빗 다니엘스(오른쪽)와 크리스토프 뒤모.

‘세계적인 실내악단과 카운터 테너의 만남.’ 평창동계올림픽 ‘얼티밋 카운터테너 with 세종솔로이스츠’가 오는 6월 11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2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1호 세종솔로이스츠와 ‘세계 3대 카운터테너’ 데이빗 다니엘스, 유럽 오페라 신성(新星) 크리스토프 뒤모가 함께하는 무대다. 전석 무료 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 티켓은 26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이날 무대에 서는 데이빗 다니엘스는 그라모폰지가 ‘클래식 음악계의 선구자 10인’ 중 한명으로 선정된 인물로 현재 세계 주요 오페라단과 콘서트, 리사이틀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크리스토프 뒤모는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으로 수많은 오페라 무대의 출연 섭의를 받으며 정상급 카운터테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성악가다.

이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세종솔로이스츠’美CNN이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라고 극찬한

앙상블 팀으로 강호 줄리어드 대학교수가 한국을 주축으로 세계의 젊은 연주자들을 초대해 1994년 창단했다.

이날 연주에서 두 명의 카운터 테너는 종교와 세속음악이 공존하던 바로크 시대 음악의 다양한 형식으로 들려준다.

세종솔로이스츠가 연주하는 헨델의 ‘솔로몬’ 중 ‘서곡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헨델의 ‘로렐린다’ 중 ‘죽음의 공허한 영광이여... 어디에 있는

가’, ‘아리오단테’ 중 ‘의무, 정의, 사랑’, 비발디의 ‘몬테주마’ 중 ‘그의 딸은 어디에 있는가’, ‘슈스티노’ 중 ‘나의 사랑하는 님과 만나리’ 등을 들려준다.

또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RV.514’를 선사하며 퍼셀의 ‘사콘느 사단조’, ‘오너라, 너 예술의 아들들이여’ 중 ‘트럼펫을 울려라’ 등을 만날 수 있다. 사전 예약 후, 공연 당일 선착순 좌석 교환. 1인당 4매 예매 가능. 문의 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넘어넘어 전면증보판 기금 마련전’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5일~내달 1일까지 은암미술관

기증 작품 50여점 전시·판매

최근 5·18민주항쟁 관련 최초 체계적인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넘어)가 32년 만에 전면증보판으로 나오며 주목받았다.

‘넘어넘어’를 엮은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광민회)가 25일~6월1일 은암미술관에서 ‘넘어넘어 전면증보판 기금마련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향후 출판기념회 등 각종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회원과 지역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 50여점을 전시, 판매한다.

황석영 작가는 황재형 작가가 그린 ‘골목, 오후’ 작품을 기증했다. 강원도 광산마을의 검은 분위기가 엿보이는 작품이다.

고(故)오승은 작가의 ‘귀나’도 만날 수 있다. 오방색을 활용해 지역 산천을 아름답게 재해석했다.

또 강연준 작가의 1992년 작 ‘범성포’, 황영성 작가의 ‘가족(판화)’ 등 지역 원로 작가부터 박주하의 ‘산과 여인’ 등 중견 작가 작품까지 만날 수 있다.

홍성담 작가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광주 오월을 주제로 제작한 연작판화 50점도 출품돼 눈길을 끈다. 김준호, 신동원, 한희원 등 지역 작가들도 작품을 기증하며 힘을 보탠다. 지선 백양사



홍성담 작 ‘사사사철, 가을’

방장스님, 학정 이돈흥 서예가 등은 서예작품을 기증했다.

한편, 광민회는 6월 중 황석영 작가가 참여하는 출판기념회와 토크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극사실화 6인전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25일~내달 5일



▶김대연 작 ‘포도’

포도 한알 한알이 탐스럽게 보인다.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 껍질에 맺힌 이슬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하다.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인근 세계조각·장식박물관이 박물관 내 M갤러리에서 ‘서양화 극사실화 6인전’을 25일부터 6월5일까지 연다.

백제갤러리가 주관한 이번 전시에는 김대연, 김주영, 박병우, 박종경, 이창호, 정창기 등 작가 6명이 참여해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린 정물화 2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과일과 꽃을 소재로 삼아 마치 사진 같은 정밀한 묘사를 보여준다. 각 작가마다 종류를 달리하며 비교해서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다.

김대연 작가는 포도를 캔버스에 옮겼다. 80호

크기(150×80cm) 작품 ‘포도’는 포도 뿐 아니라 줄기와 잎파리를 함께 그려 생동감을 더한다. 포도알 표면을 허얇게 뒤덮은 당분까지 표현한 섬세함이 엿보인다. 김주영 작가의 ‘코스모스’도 실제 화분에 담긴 꽃잎을 보는 느낌이다. 빛 각도에 따라 옆에 진 그림자가 입체감을 부여한다.

박병우 작가가 그린 ‘눈부신 결실’은 이슬을 머금고 있는 사과가 주인공이다. 원형 무늬로 단순하게 배경을 채워 사과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밖에 박종경 작가는 밤과 살구를 그린 ‘Dream-richness’를, 이창호 작가는 자두를 그린 ‘자두-풍요’를 출품한다. 정창기 작가는 ‘딸기’ 연작을 전시한다. 문의 062-228-349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연극계 거장 손숙·박정자 문화전당서 릴레이 1인극



모노드라마·낭독 콘서트 27~28일 잇따라 공연

‘박정자와 손숙, 한국의 대표 배우를 만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연극배우 박정자와 손숙을 초청, 오는 27~28일 잇따라 공연을 갖는다. 이번 기획에서는 대규모 가변 극장인 극장 1을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동시에 활용해 공연과 함께 배우들 사진 전시회도 함께 갖는다.

‘엄마를 부탁해’, ‘신의 아그네스’, ‘절자요 엄마’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 강한 인상을 남긴 손숙은 모노 드라마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오후 3시)을 무대에 올린다.

작고한 박완서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온 세상을 주고 싶을 만큼 아꼈던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이야기로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수다처럼 시작되는 유행서 형식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 여인의 삶이 드러난다.



박정자

손씨는 공연 하루 전인 26일 오후 7시 극장 3에서 ‘삶과 예술 이야기’를 주제로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한다.

배우 박정자는 조선시대 비운의 여인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담은 낭독 콘서트 ‘영영 이별 영 이별’(오후 5시)을 공연한다.

세계 문학상 수상자인 김별아의 ‘미실’을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수양대군의 명령으로 영월에 귀양 간 단종이 다섯 달 만에 사사 당하자 절인, 날품팔이꾼, 뒷방 늙은이로 여든에 세상을 떠난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과 기타리스트 이정엽씨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한다.

27일과 2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두 여배우의 연극 인생이 담긴 사진 전시회도 열린다. 티켓 가격 각 3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